



보도시점 (지 면) 8.27(화) 조간
(인터넷) 8.26(월) 12:00

중기부, 지자체와 손잡고 규제자유특구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로 키운다

- 지역·특구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 논의
- 규제자유특구를 전략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-지자체 협의 정례화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)는 26일(월) 오후,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‘제1차 중기부-지자체 특구협의회’를 개최하였다.

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이날 협의회를 통해 '24년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-지자체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,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협력기반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
지자체 관계자는 “타 지역 특구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, 현재 운영 중인 특구의 차질없는 계획이행과 성과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또한, 올해 처음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“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&D를 통한 글로벌 진출 성과가 기대되지만, 해외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다”며 “중기부가 앞으로도 글로벌 인증기관·연구기관 등과의 해외협력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건의하였다.

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“지역별 각 특구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들에게 인프라, 기술개발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함으로써 특구내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의 근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며,

“규제자유특구를 전략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타 부처 특구와도 지속적으로 협업*하여 중기부-지자체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다져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*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간 인사교류 시행('24.2.29)

담당 부서	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석배 (044-204-7190)
		담당자	사무관	박경수 (044-204-7212)



참고

중기부-지자체 특구협의회 개요

- ☐ (배경) 중기부와 지자체 간 소통과 토론을 통해 특구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특구 운영을 도모
- ☐ (일시) '24.8.26(월) 14:00~16:20
- ☐ (장소) 대한상공회의 8층 회의실
- ☐ (참석) 특구혁신기획단장, 14개 시·도, 산업부, KIAT, 중진공 담당자
- ☐ (논의내용) 하반기 특구 운영 소개 및 지자체 의견 수렴

< 특구협의회 세부 계획(안) >

시 간	주요 내용	비고
14:00~14:02	개회 및 참석자 안내	-
14:02~14:05	인사말씀	특구혁신기획단장
14:05 ~ 16:10	■ 안건 발표 및 토론	
	① '24년 신규특구 실증착수 사전준비 추진계획	
	② '24년 「규제자유특구 주간」 행사 추진계획	
	③ 규제자유특구 정보시스템 개편경과 및 계획	
	④ 글로벌 혁신특구 국제협력 경과 및 계획	
	⑤ 규제자유특구·경제자유구역 연계 협력	
	⑥ '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기획 지원	
	⑦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관리·운영 기능강화	
	⑧ '24년 하반기 특구기업 사업화 지원 계획	
	⑨ 지역특화특구 기획·운영 관련 지자체 협력 방안	
	■ 지자체별 특구계획 대비 이행실적 (성과, 이슈 및 동향 점검)	
16:10~16:15	정리 및 마무리말씀	특구혁신기획단장
16:15~16:20	기념 촬영	참석자